

이런 비교 광고로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후, 2012년에는 조기수용층을 겨냥한 럭셔리 세단형인 테슬라-S를 출시해. 그리고 뒤이어 조기수용층 중에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SUV형인 테슬라-X를 2015년에 소개했어. 2017년에는 조기다수층을 위한 보급형 세단인 테슬라-3, 그다음에는 후발 조기다수층 외에 후기다수층도 포용하기 위해 다용도 크로스오버인 테슬라-Y가 나왔지.

〈표9〉 테슬라 모델 비교

	모델-S	모델-X	모델-3	모델-Y
스타일	세단형	SUV형	보급형	다용도형
60마일 도달	2.4 sec	2.7 sec	3.2 sec	3.5 sec
최고 속도	163 mph	163 mph	162 mph	155 mph
주행거리	348 mile	305 mile	299 mile	280 mile
마력	785 hp	785 hp	450 hp	450 hp
가격	\$99,990	\$104,990	\$56,990	\$60,990
출시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
타겟	선도형 조기수용층	활동형 조기수용층	선발 조기다수층	후발 조기다수층

모델명도 S-E-X-Y로 계획했다는데, E라는 명칭은 포드가 먼저 썼기 때문에 숫자 3을 E와 비슷하게 디자인해서 S-3-X-Y가 되었는데. 테슬라 마케팅팀이 처음부터 제품수명주기에 맞춰 제품 출시뿐 아니라 모델 이름까지 기획했다는 게 보이지?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